

● 전기협회, 제20차 KEPIC 운영협의회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5일 한국전력공사 무궁화홀에서 KEPIC 운영협의회 참여기관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KEPIC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9차 KEPIC 운영협의회 결과와 2013년도 KEPIC 개발사업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올해 KEPIC 추록 개발은 6개 기술 분야 중 36종이 개발 완료됐으며, 18종이 개발 중(다년개발분)에 있다. 또한 KEPIC 2010년판 관리대상 397종 중 5개 기술 분야 59종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어진 의결안건 심의에서는 2014년도 KEPIC 사업비 분담(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KEPIC 중·장기 사업 추진계획의 중기 소요예산 조달계획에 따라 참여기관별 분담금액이 확정됐다.

한편 전기협회는 2014년 KEPIC 주요 사업으로 ▲KEPIC 개발 및 개선보완 ▲전력산업계 KEPIC 적용 활성화 ▲KEPIC 국제화 체제구축 및 해외적용 기반 마련 ▲KEPIC 웹기반 운영체계 시행 및 확대 등을 적극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20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정부, 산·학·연 관계자 등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회의결과와 전기 설비기술기준 운영현황, 2013년도 기술기준/판단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보고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주요 보고사항으로는 ▲기술기준



제·개정(기술기준 3개 조항, 판단기준 83개 조항) ▲한국전기규정(제1편 공통분야 제정안, 제2편 제정착수 등) ▲기술기준 적용활성화(규정/지침 개발, 워크숍/세미나 개최, 기술교육 시행 등) ▲기술기준 교류협력(IEC/TC 국내간사업무, 중국전력기업연합회 기술교류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어진 의결안건 심의에서는 4단계(2011~2015년) 4차년도 사업계획(안)이 심의, 의결됐으며, 중점 사업으로 △현행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선진화 △한국전기규정(KEC) 제정 △기술기준 적합성 평가 △기술기준 적용을 위한 상세 규정·지침 개발 △기술기준 적용활성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는 기술기준의 채택·조정·승인을 위한 정부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자율기구로서, 산·학·연·관에서 총 18개 위원회, 200여명의 기술기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전기협회-독일 DKE/VDE, KEC 개발 양해각서 체결

대한전기협회는 한국전기규정(KEC) 개발과 한국형 전기설비 통합실증단지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독일 현지에서 김무영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과 미카엘 타이젤러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DKE) 위원장, 울프강 니드질라 독일전기협회(VDE) 사장 등 10여 명의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연구 및 상호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VDE와 체결하였다. 또한 DKE와는 기존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연장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KEC 개발과 한국형 전기설비 통합실증단지 구축 협력, 기술교류 증진, 표준 교육 시험인증 개발활동에 관한 지식공유, 상호 관심사에 관한 정보의 무상 교환, 공통 관심분야의 신규 국제표준개발, 기술세미나, 워크숍 및 컨퍼런스 공동개최 등을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DKE, VDE의 참여는 KEC 개발과 한국형 전기설비 통합실증단지 구축에 있어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대한전기협회는 중국전력기업연합회(CEC), 슈나이더 일렉트릭, 에디슨전기협회(EEI) 및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일본전기협회(JEA) 및 일본전기설비학회(IEIEJ)와 MOU를 체결한 데 이어 DKE, VDE와 MOU 체결을 성사시켜 유럽, 미국, 아시아의 산·학·협단체 등과의 광범위한 국제교류 협력체계를 한층 공고히 구축하게 됐다.



전기협회-VDE, 양해각서 체결



전기협회-DKE, 양해각서 연장

● 전기협회, 인사

〈승격〉

- ▲기술처 이한수(2직급) ▲KEPIC처 변훈석(3직급, 사업총괄팀장) ▲KEPIC처 강경우(4직급)
- ▲KEPIC처 조경운(4직급) ▲기획홍보처 배성수(4직급) ▲기술기준처 원태식(4직급)
- ▲기술기준처 박왕수(5직급) ▲기획홍보처 심우민(5직급)

〈보직부여〉 ▲KEPIC처 임종원(원자력팀장)

〈부처이동〉 ▲KEPIC처 근무 이주철

● 전기협회-충청북도-충북 제천시, KEC 실증단지 구축 MOU 체결

대한전기협회는 충청북도 및 충북 제천시와 지난달 23일 ‘한국형 전기설비 통합 실증단지 구축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국내 최초의 ‘한국형 전기설비 통합 실증단지’가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2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됐다.

‘전기설비 통합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국제 전기설비표준인 IEC를 기초로 전기설비의 설계·시공·검사·안전관리의 국제화를 위한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기반조성사업비를 지원 받아 수행되는 사업이다.



실증단지 구축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48개월이며, 향후 저압 전기설비 실증단지가 완료되면 점진적으로 고압 전기설비, 신재생 및 지능형전력망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전기협회, 2014년도 표준품셈 발간

전기협회에서 발간된 2014년판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은 발주기관과 시행처 간의 이견을 더욱 해소하였으며, 현실화된 문구정리, 용어·적용 기준 정비, 공량 및 해설조항 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금년도에는 ‘철탑 변위량 측정’ 등 3개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한편 ‘전력구 감시 시스템 점검’, ‘전력케이블 설치’ 등 123개 개정 항목이 반영된 2014년 개정판을 발간, 보급한다.

표준품셈은 전기부문 제1장 적용기준, 제2장 송전설비공사, 제3장 변전설비공사, 제4장 배전설비공사, 제5장 내선설비공사, 제6장 계측 및 자동제어 설비공사, 제7장 전기철도의 전기설비공사, 제8장 항공등화 설비공사를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표준품셈, 권말 부록으로 2014년 시중노임단가 적용요령 및 단가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산정기준 등을 한 권으로 엮어 발간되었다.

- 규 격 : 국판(25절) / 하드커버
- 정 가 : 43,000원
- 문 의 : 정보지원팀
 - 전 화 : 02-3393-7694 / 팩 스 : 02-3393-7699
 - 이메일 : yjh@elec.or.kr

